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의 구강보건교육 유효도 평가 연구

주 온 주
원광보건대학 치위생과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Estimation for Oral Health Education of Dental Patients

On-Ju Ju

Dept. of Dental Hygiene, Wonkwang Health Science College, Iksan-City 570-750, Korea

ABSTRACT The present study accentuate to investigate attitude about oral health education. The purpose is to provide awareness the importance of oral health education in dental clinics. A total of 350 surveys were over the age of 18 who visited oral health institutes in Chollabuk-Do, Korea. Survey was conducted with self-reported questionnaires from March 22 through April 10, 2004.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71.7% of the dental patients visited dental clinic for treatment of oral diseases and 45.0% the largest group, acquired information on oral health through massmedia and the internet. 2. In their curiosity about oral health satisfied, female, better educated and professionals made a higher request. 3. Awareness of oral health educa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age and marital status. Dentists were most highly regarded as oral health educators.

Key words Oral health education, Attitude

서 론

구강건강이란 상병에 이환되어 있지 않고 정신작용과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치아와 악안면 구강조직기관의 상태를 의미하며¹⁾, 구강건강을 증진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인 구강건강 관리와 전문가에 의해 체계적인 예방 위주의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환자의 동기유발과 구강보건교육은 예방적 구강진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며 환자교육에 있어 구강보건인력 자신의 동기유발은 환자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동기유발보다 우선한다고 할 수 있다²⁾.

개인별 치과환자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시에는 환자 자신의 구강상태가 질병상태와 일치된 내용을 주로 교육하기 때문에 동기유발성이 높고, 비교적 전문적인 구강보건교육 내용도 이해시킬 수 있다³⁾.

구강보건인력의 태도 등을 기초로 하여 자신의 구강건강을 위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것에 의해서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환자들에게 심어줌으로서 구강보건행동을 습관화시킬 수 있는 치과 임상에서의 응용은 상당히 중요하다⁴⁾.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을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이들의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책임이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가 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태도를 견지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구강보건교육활동을 실천하여야 한다⁵⁾.

현재 치과 임상에서 치과위생사가 선호하는 업무와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 간에는 차이가 있다는 많은 보고가 있다. 정⁶⁾은 치과위생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업무는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치과업무지만 실제로 치과위생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진료보조업무 라고 하였다. 한편 강⁷⁾은 치과위생사의 주요업무로 환자관리와 예방업무를 들고 있으나 현재 구강진료제도에서는 진료보조업무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하여 구강보건교육 활동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저자는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유효도를 평가하여 진료실내 구강보건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라북도 소재하고 있는 구강진료기관 중 치과위생사가 근무하고 있는 10곳에 내원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 350명을 편의추출 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04년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이었다.

Corresponding author
Tel: 063-840-1260
Fax: 063-840-1269
E-mail: onjusarang@hanmail.net

조사방법은 해당 구강진료기관의 치과위생사에게 협조를 요청한 후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여 자기가입이 가능한 환자는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불가능한 환자는 치과위생사의 도움으로 작성하게 한 후 우편으로 재발송하게 하였다.

모두 350부의 설문지 가운데 무응답 항목이 많거나 자료가 불충분한 43부를 제외한 307부(응답률 87.7%)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설문지의 조사 내용 중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 및 태도를 분석하기 위한 구강진료기관 내원 이유,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습득 경로는 이⁴⁾, 정⁵⁾, 이⁹⁾, 송¹⁰⁾ 등의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구강건강에 관한 공금증 해결에 대한 요구와 구강보건교육 업무 인지에 대한 인식을 보기 위한 문항 2개는 본 연구자가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3. 통계학적 분석

수집된 자료는 통계처리 프로그램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10.0)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강진료기관에 내원한 이유,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습득 경로, 구강보건교육을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빈도와 백분율로 계산하였고, 치과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관심과 태도의 차이를 보기 위해 구강건강에 관한 공금증 해결에 대한 요구도, 구강보건교육의 업무인지에 대한 인식을 보기 위해서는 χ^2 (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검증에 사용된 유의수준(α)은 0.05이었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업, 가족의 월평균 소득 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Table 1)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자 42.7%, 여자 57.3%로 여자가 더 많았으며, 연령은 20대 이하가 37.1%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30대가 31.0%, 40대 이상이 31.9%이었으며, 구강진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가운데 미혼이 41.4%, 기혼자가 58.6%로 기혼자가 더 많았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9.9%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이 43.3%, 중학교 졸업 이하가 6.8%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직업은 주부 22.8%, 회사원 19.5%, 학생 13.7%, 자영업 13.4%, 전문직 13.0%, 서비스업 5.9%, 공무원 3.9%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적으로 101~200만원이 46.3%로 가장 많았고, 201~300만원은 27.4%였으며, 301만원 이상은 10.0%로 가장 적었다.

2. 구강진료기관에 내원한 이유

조사대상자가 구강진료기관에 내원한 이유를 살펴보면(Table 2)와 같이 구강병 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경우가 71.7%로 가장 많았고, 구강병 예방치치와 정기구강검진을 위해 내원하는 경우는 각각 12.1%이었다.

기타에 대한 응답으로는 환자와 동행, 진료예약, 궁금한 것이 있어서 라는 내용이 있었다.

Table 1. General special quality of investigation subject person

Special quality	More than division	N	%
Sex	Man	131	42.7
	Woman	176	57.3
Age	More than 18 years old ~ less than 20 years old	114	37.1
	More than 20 years old ~ less than 40 years old	95	31.0
Marital status	More than 40 years old	98	31.9
	Single	127	41.4
Attainments in scholarship	The married	180	58.6
	Below middle school graduation	21	6.8
	high school graduation	153	49.9
Job	More than university graduation	133	43.3
	A student	42	13.7
	Company employee	60	19.5
	Housewife	70	22.8
	Personal-service business	41	13.4
	Service industry	18	5.9
	Public official	12	3.9
Family's month income	Professional	40	13.0
	Etc.	24	7.8
	Below 1,000,000 won	50	16.3
	1,010,000~2,000,000 won	142	46.3
	2,010,000~3,000,000 won	84	27.4
	More than 3,010,000 won	31	10.0
Total		307	100.0

Table 2. Reason visiting in the oral medical institution

Article	N	%
Oral disease prevention disposal	37	12.1
Oral disease treatment	220	71.7
Regular oral examination	37	12.1
Etc.	13	4.1
Total	307	100.0

Table 3. Knowledge acquisition channel

Article	N	%
Mass communications and internet	138	45.0
Dentist or adminicle power	128	41.7
Relative and family, friend	39	12.7
Teacher	2	0.6
Total	307	100.0

3.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습득 경로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습득 경로는(Table 3)과 같이 응답자 중 45.0%가 매스컴 및 인터넷을 통해서라고 대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치과 의사나 보조 인력이 41.7%, 친지나 가족, 친구가 12.7%로 나타났으며, 학교 선생님이 0.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4. Request about oral health education necessity

Special quality	More than division	yes	no	total	N(%)	p
Sex	Man	72(55.0)	59(45.0)	131(42.7)	0.034*	
	Woman	119(67.6)	57(32.4)	176(57.3)		
Age	More than 18 years old ~ less than 20 years old	71(62.3)	43(37.7)	114(37.1)	0.861	
	More than 20 years old ~ less than 40 years old	61(64.2)	34(35.8)	95(31.0)		
	More than 40 years old	59(60.2)	39(39.8)	98(31.9)		
Marital status	Single	81(63.8)	46(36.2)	127(41.4)	0.637	
	The married	110(61.1)	70(38.9)	180(58.6)		
Attainments in scholarship	Below middle school graduation	11(52.4)	10(47.6)	21(6.8)	0.001**	
	high school graduation	81(52.9)	72(47.1)	153(49.9)		
	More than university graduation	99(74.4)	34(25.6)	133(43.3)		
Job	A student	24(57.1)	18(42.9)	42(13.7)	0.031*	
	Company employee	34(56.7)	26(43.3)	60(19.5)		
	Housewife	46(65.7)	24(34.3)	70(22.8)		
	Personal-service business	18(43.9)	23(56.1)	41(13.4)		
	Service industry	14(77.8)	4(22.2)	18(5.9)		
	Public official	7(58.3)	5(41.7)	12(3.9)		
	Professional	33(82.5)	7(17.5)	40(13.0)		
	Etc.	15(62.5)	9(37.5)	24(7.8)		
Family's month income	Below 1,000,000 won	27(54.0)	23(46.0)	50(16.3)	0.329	
	1,010,000~2,000,000 won	87(61.3)	55(38.7)	142(46.3)		
	2,010,000~3,000,000 won	54(64.3)	30(35.7)	84(27.4)		
	More than 3,010,000 won	23(74.2)	8(25.8)	31(10.0)		
Total		191(62.2)	116(37.8)	307(100.0)		

* p < 0.05 ** p < 0.01

4. 구강보건교육 필요에 대한 요구도

구강보건교육 필요에 대한 요구도는(Table 4)와 같이 62.2%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건강에 대해 궁금한 것을 구강보건인력에게 물어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 남자는 55.0%, 여자는 67.6%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여자가 구강건강에 대해 더 적극적이었고(p < 0.05), 학력에 따른 비교에서는 중학교 졸업이하 52.4%, 고등학교 졸업 52.9%, 대학교 졸업 이상이 74.4%로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p < 0.01).

또한 직업에서는 구강건강에 관한 궁금증 해결에 대한 요구도가 전문직이 8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비스업, 주부, 공무원, 학생, 회사원, 자영업 순으로 나타났다(p < 0.05).

5. 구강보건교육 필요에 대한 미충족 이유

구강보건교육을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Table 5)와 같이 구강보건인력이 너무 바빠 요구할 수가 없다는 5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강보건인력이 불친절하여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는 23.3%, 구강보건인력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해 있어서 구강보건교육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응답은 16.4%로 나타났다.

6. 구강보건교육 담당자에 대한 인식

구강보건교육 담당자에 대한 인식은(Table 6)과 같이 치과의

Table 5. Reason which do not require oral health education

article	N	%
Oral health manpower is tired physically and spiritually.	19	16.4
Because oral health manpower is unkind, hard to broach.	27	23.3
Oral health manpower is so busy that can not charge.	66	56.9
Etc.	4	3.4
Total	116	100.0

사의 업무라는 응답이 48.5%로 가장 많았고, 치과위생사의 업무라는 응답은 35.8%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자가 인식하는 구강보건교육의 업무는 치과의사 49.6%, 치과위생사 33.6%, 간호조무사 8.4%, 모든 인력 7.6%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치과의사 47.7%, 치과위생사 37.5%, 모든 인력 13.7%, 간호조무사 1.1% 순으로 나타났다(p < 0.05).

연령에서는 40대 이상의 59.2%가 구강보건교육이 치과의사 업무라고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반면에 모든 인력의 업무라는 응답은 5.1%로 가장 낮았다(p < 0.05).

결혼여부에서는 미혼이 치과의사 41.7%, 치과위생사 39.4%, 모든 인력 15.7%, 간호조무사 3.2%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혼에서는 치과의사 53.4%, 치과위생사 33.4%, 모든

Table 6. Realization about oral health education person in charge

Special quality	More than division	dentist	dental hygienist	Nursing assistance four	all man-powers	total	N(%)	p
Sex	Man	65 (49.6)	44 (33.6)	10 (7.6)	12 (9.2)	131 (42.7)	0.010*	
	Woman	84 (47.7)	66 (37.5)	2 (1.1)	24 (13.7)	176 (57.3)		
Age	More than 18 years old ~ less than 20 years old	45 (39.5)	44 (38.6)	6 (5.2)	19 (16.7)	114 (37.1)	0.030*	
	More than 20 years old ~ less than 40 years old	46 (48.4)	36 (37.9)	1 (1.1)	12 (12.6)	95 (31.0)		
	More than 40 years old	58 (59.2)	30 (30.6)	5 (5.1)	5 (5.1)	98 (31.9)		
Marital status	Single	53 (41.7)	50 (39.4)	4 (3.2)	20 (15.7)	127 (41.4)	0.046*	
	The married	96 (53.4)	60 (33.4)	8 (4.4)	16 (8.8)	180 (58.6)		
Attainments in scholarship	Below middle school graduation	10 (47.6)	8 (38.1)	1 (4.8)	2 (9.5)	21 (6.8)	0.441	
	high school graduation	77 (50.3)	52 (34.0)	9 (5.9)	15 (9.8)	153 (49.9)		
	More than university graduation	62 (46.6)	50 (37.6)	2 (1.5)	19 (14.3)	133 (43.3)		
Job	A student	17 (40.5)	15 (35.7)	2 (4.8)	8 (19.0)	42 (13.7)	0.058	
	Company employee	30 (50.0)	21 (35.0)	5 (8.3)	4 (6.7)	60 (19.5)		
	Housewife	35 (50.0)	22 (31.4)	-	13 (18.6)	70 (22.8)		
	Personal-service business	26 (63.4)	12 (29.3)	2 (4.9)	1 (2.4)	41 (13.4)		
	Service industry	8 (44.5)	6 (33.3)	-	4 (22.2)	18 (5.9)		
	Public official	6 (50.0)	5 (41.7)	-	1 (8.3)	12 (3.9)		
	Professional	17 (42.5)	19 (47.5)	1 (2.5)	3 (7.5)	40 (13.0)		
Family's month income	Etc.	10 (41.7)	10 (41.7)	2 (8.3)	2 (8.3)	24 (7.8)	0.332	
	Below 1,000,000 won	25 (50.0)	18 (36.0)	1 (2.0)	6 (12.0)	50 (16.3)		
	1,010,000~2,000,000 won	63 (44.4)	57 (40.1)	5 (3.5)	17 (12.0)	142 (46.3)		
	2,010,000~3,000,000 won	50 (59.5)	21 (25.0)	5 (6.0)	8 (9.5)	84 (27.4)		
	More than 3,010,000 won	11 (35.5)	14 (45.2)	1 (3.2)	5 (16.1)	31 (10.0)		
Total		149 (48.5)	110 (35.8)	12 (4.0)	36 (11.7)	307 (100.0)		

* p < 0.05

인력 8.8%, 간호조무사 4.4%의 순으로 나타나(p < 0.05) 성별, 연령, 결혼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오늘날 경제 및 사회수준의 향상에 따라 발생하는 보건문제

의 특성으로 볼 때 아무리 치료수단이 발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보다 중요한 점은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치료수단 이상으로 예방수단이 먼저 발전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환자는 구강진료기관에 내원한 이유가 구강병의 예방치치나 정기구강검진을 위해 내원하기 보다는 구

강병 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환자 대부분이 예방에 대하여 잘 모르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동통이나 불편감이 없어서 진료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일 것이라 사료된다.

최근에는 대량전달매체인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등을 통하여 집단구강보건교육은 하고 있으나, 개인의 연령, 구강상태, 생활환경, 교육정도를 고려한 개발구강보건교육은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²⁾. 본 설문에서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습득 경로로 매스컴 및 인터넷이 45.0%로 치과 의사나 보조인력 41.7%보다 약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Michael 등⁸⁾의 연구에서는 교사가 구강보건지식을 교과서나 전문가를 통해서 얻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으나, 이⁹⁾와 송¹⁰⁾의 연구에서는 매스컴이 치과인력보다 더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의 인지경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하였다. 매스컴 및 인터넷이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습득 경로로서의 역할이 큰 이유는 인터넷의 보급과 편리성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신문, 서적, 텔레비전 등의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가 과잉되어 어떤 지식이 유용한 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아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¹¹⁾. 앞으로는 더욱 매스컴 및 인터넷을 통한 구강보건교육이 정확한 지식이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구강진료기관에서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식과 그것을 상대방에게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며 실천 가능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구강보건교육은 환자의 교육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시할 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치과환자와 치과위생사가 구강보건교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환자마다의 가치관에 따라 교육요구가 다를 수 있고, 치과위생사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 환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인식도 다를 수 있다¹²⁾. 박¹³⁾의 치과환자와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교육 인식도 비교에서 환자의 낮은 교육적 요구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환자들은 스스로 교육적 요구를 할 수 있는 환경에 항상 접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구강보건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연구 결과 환자의 56.5%가 구강보건교육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62.2%가 구강건강에 관한 궁금증 해결에 대해 요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박¹³⁾의 연구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남자에 비해 여자가, 학력이 높을수록 구강건강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구강보건교육을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강보건인력이 너무 바빠 요구할 수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박 등¹⁵⁾은 치과 의사는 환자교육이 개업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예방적 측면에서 충실한 계획과 교육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교육기재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치과진료실에서 치과 의사가 구강질환의 치료에 주력한다고 볼 때 구강보건교육은 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주 업무가 된다고 할 수 있다¹⁴⁾. 박 등¹⁵⁾은 구강보건진료기관에서는 구강보건 보조 인력을 활용하여 예방 지향적이고 포괄

적인 구강보건진료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구강보건교육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라고 응답한 환자는 35.8%로 대부분의 환자들은 구강보건교육을 치과 의사의 역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치과위생사가 예방업무 및 구강보건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요원으로 인식되어야 하는데 구강진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들이 보조업무에 치중하고 있어 환자들에게 보여진 결과라고 사료된다.

실제로 유¹⁶⁾의 연구에서 환자들의 71.8%가 치과위생사가 하는 업무로 치과 의사의 진료보조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한¹⁷⁾의 연구에서도 치과 의사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로 예방업무와 구강보건교육업무보다 진료보조를 좀 더 높게 생각하고 있었다.

구강보건교육은 환자가 시간적, 환경적,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되며 치과 의사들은 구강보건교육이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강보건교육 업무에 대한 시간 할애와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조사대상자를 전국적인 규모와 전체 구강진료기관 대신 전라북도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구강진료기관에 국한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둘째,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에 의한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의 성실도와 설문문항의 이해 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구강진료기관에 내원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 350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여 진료실에서의 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 시키고자 시행하였으며, 2004년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자기기입식에 의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과환자들의 71.7%는 구강진료기관에 내원하는 이유가 구강병 치료를 위해서였으며, 구강건강 지식 습득 경로로는 매스컴 및 인터넷이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구강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관한 요구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에서는 전문직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구강보건교육은 치과인력 중 누구의 업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성별, 연령, 결혼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환자들이 인식하는 구강보건교육은 치과 의사의 업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참고문헌

1. 김종배 외 6인: 공중구강보건학, 9판, 고문사, 서울 pp. 11-52, 2001.
2. 김종배, 백대일, 장기완: 구강보건교육학, 고문사, 서울 pp. 80, 1993.
3. 윤신중, 신승철, 김경희: 초등학교 학동을 대상으로 한 직접 및 간접 구강보건교육의 효과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0(2): 32-38, 1993.
4. 이정숙: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태도 분석, 여주대학논문집 1: 185-199, 1998.

5. 정재연: 한국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태도 및 실천에 관한 조사 연구, 수원여자대학논문집 22: 109-119, 1996.
6. 정순희: 치과위생사의 업무실태 및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치아사랑, 여름 26, 1993.
7. 강재경: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한 치과의사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동우전문대학논문집 6(16): 35-45, 1994.
8. Michael p.: Knowledge and attitudes of school teachers toward oral health programs and preventive dentistry, JADA 107: 229-234, 1983.
9. 이항남: 구강진료기관 이용자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0. 송설경: 일부 대학생의 구강보건인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1. 강부월, 강재경, 남용옥: 치과위생학개론, 개정3판, 청구문화사, 서울 pp.105-106, 2003.
12. Harris: Patient Education In the Dentist and the Assistant, 4th ed, 1977.
13. 박미영: 치과환자와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교육 인식도 비교,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4. 김인숙외 7인: 구강보건교육학 고문사, 서울 pp. 9-10, 36, 2002.
15. 박정순, 김미정: 진료실에서의 구강보건교육실태 조사 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8(1): 31-43, 2002.
16. 유미선: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 및 선호도 조사 연구. 전북대학교 보건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3.
17. 한경순: 치과위생사의 업무 및 전문화에 대한 치과의사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치과연구 44(5): 55-68, 1998.

(Received August 5, 2005; Accepted August 27, 2005)

